

도이칠란드어와 조선어에서 개별적문장성분들의 자리에서의 류사성과 차이점분석

한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힘들고 까다로와도 문법공부를 잘하여야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외국어교육에서는 해당 외국어를 조선어와의 대비속에서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그 류사성과 차이점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와 조선어에서 개별적문장성분들의 자리에서의 류사성과 차이점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도이칠란드어와 조선어에서 개별적인 문장성분들의 자리에서의 류사성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류사성은 첫째로, 두 언어에서 주어가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다는 것이다.

예: (도이칠란드어)

Sie traten ein. Marie erhob sich, ein wenig die Brauen hoch. (그들이 들어섰다.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썹을 약간 올리 치떴다.)

(조선어)

지배인이 기술자 2명을 데리고왔다.

그러나 주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는것이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예: (도이칠란드어)

Eines Abends kehrte Martin von der Arbeit zum Essen heim. (어느날 저녁 마르틴은 일을 끝내고 식사하려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조선어)

오후에 명철이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기사장을 찾아갔다.

이와 같이 두 언어에서 주어가 대체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나 어순변화로 다른 문장성분들이 놓일수도 있다. 이것이 두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류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류사성은 둘째로, 개별적문장성분들이 두 언어에서 형태적인 구별표식이 없이 령형태(Null-Morphem)에 놓이는 경우 그것들의 놓임순서는 《주어-보어》라는것이다.

도이칠란드어뿐만아니라 조선어에서도 알림문에서 개별적문장성분들이 형태적인 구별표식이 없이 놓이는 경우 그것들의 놓임순서는 첫번째 문장성분을 주어로, 두번째 문장성분을 보어로 보고있다.

례: (도이칠란드어)

- ① Die Mutter sieht die Tochter. (어머니가 딸을 본다.)

주어 술어 보어

- ② Die Tochter sieht die Mutter. (딸이 어머니를 본다.)

주어 술어 보어

(조선어)

- ① 영희 체육관에서 오희 만났어.

주어 보어

- ② 오희 체육관에서 영희 만났어.

주어 보어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이칠란드어문장 ①의 첫머리에 놓이는 《die Mutter》와 ②의 첫머리에 놓이는 《die Tochter》가, 조선어문장 ①의 첫머리에 놓이는 《영희》와 ②의 첫머리에 놓이는 《오희》가 주어로 된다. 우의 도이칠란드어실례에서 보어가 세번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론하는것은 술어가 아니라 아무러한 형태적구별표식이 없는 명사구들이 련이어 놓이는 경우를 론하고있으므로 명사구의 자리를 두번째 자리로 본다.

류사성은 셋째로, 두 언어에서 부름말과 감동어가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이나 마지막에 또는 임의의 자리에 놓일수 있다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Lieber Otto, ich danke Dir für Deinen Glückwunsch.

Ich danke Dir, lieber Otto, für Deinen Glückwunsch.

Ich danke Dir für Deinen Glückwunsch, lieber Otto.

(사랑하는 오토, 네가 축하해준데 대해 너에게 감사를 드려.)

(조선어)

동무들! ... 우리 수령님께서 ...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의 축전을 보내주셨소.

분이야, 오늘부터 야학에 꼭 나가거라.

류사성은 넷째로, 두 언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성분과 장소를 나타내는 문장성분들의 차례가 일반적으로 《시간-장소》이라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Ich habe am Vormittag im Garten gearbeitet. (나는 오전에 정원에서 일하였다.)

(시간 + 장소)

(조선어)

일요일에 경기장에서 축구경기가 있었다.

류사성은 다섯째로, 두 언어에서 동사로 이루어진 규정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규정어가 명사구의 앞에 놓이는 경우 동사로 이루어진 규정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규정어보다 앞에 놓인다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das von mir gestern gekaufte dicke Buch (내가 어제 산 부피가 두꺼운 책)

동사로 이루어진 규정어 형용사로 이루어진 규정어

(조선어)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청년이었다.

류사성은 여섯째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 일부 문장성분들의 분리현상이다. 이때 주도어는 그자리에 그냥 남아있고 주제부의 일부 성분(의존어)들이 분리되어 문장의 가운데로 옮겨간다는것이다. 이때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 문장성분을 분리시키는 목적은 말하는 사람의 교제적목적에 따른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Wein habe ich den französischen getrunken.

주제부 떨어져나온 성분

(포도주는 내가 프랑스산을 마셨어.)

(← Den französischen Wein habe ich getrunken.)

(← 프랑스포도주를 내가 마셨어.)

(조선어)

포도주는 내가 프랑스산을 마셨다.

주제부 떨어져나온 성분

(← 프랑스포도주를 내가 마셨어.)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제부에서 일부 성분들이 분리되어 문장의 가운데부분으로 옮겨가고 주도어는 그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현상이 두 언어에서 다같이 찾아보게 되는것이다. 이 경우에도 조선어에서는 주제부가 문장의 첫머리뿐만아니라 두번째 자리에도 놓일수 있으나 도이칠란드어에서는 반드시 문장의 첫머리에만 놓일수 있다. 만일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된다.

례: (조선어)

오늘 포도주는 내가 프랑스산을 마셨다.

(도이칠란드어)

*Heute habe ich Wein den französischen getrunken.

류사성은 일곱째로, 특정한 문장성분을 강조할 때 강조하려는 성분이 도이칠란드어나 조선어에서 다같이 첫번째 자리에 놓일수 있다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Morgen wird er den Brief schreiben.

→ *Schreiben* wird er den Brief morgen.

(래일 그는 편지를 쓸것이다.

→ 쓸거야, 그가 래일 편지를.)

(조선어)

우리는 공장견학을 통하여 많은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 공장견학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이칠란드어와 조선어에서 개별적인 문장성분들의 자리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차이점은 첫째로, 술어의 자리가 서로 다른것이다. 즉 도이칠란드어에서는 문장류형에 따라 술어가 각이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지만 조선어에서는 문장류형에 상관없이 항상 문장의 마지막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이다.

도이칠란드어에서는 술어를 이루는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문장론적조건에 따라 각이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다.

례: Anna öffnet die Tür. (안나가 문을 열었다.)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문장)

Öffnet Anna die Tür? (안나가 문을 열었니?)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문장)

Wenn Anna die Tür öffnet, ... (안나가 문을 열 때 ...)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마지막자리를 차지하는 문장)

조선어에서는 문장류형에 관계없이 항상 문장의 마지막자리를 차지한다.

례: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바쳤다.

그래 이제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차이점은 둘째로, 두 언어에서 술어가 한개의 단어로서가 아니라 여러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표현되는 경우 그 놓임위치가 서로 다르다는것이다.

도이칠란드어에서는 술어가 종합적수법으로나 분석적수법으로 즉 동사의 인칭변화형만으로 또는 동사의 인칭변화형과 동사의 문법적부분이나 어휘적부분, 술사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두번째 자리와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문장에서 술어가 분석적수법으로 표현되는 경우 즉 동사의 인칭변화형과 동사의 문법적부분이나 어휘적부분, 술사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경우 동사의 인칭변화형을 제외한 나머지부분들은 문장의 마지막 자리에 놓이며 동사의 인칭변화형과 떨어져놓인다.

례: Er liest ein Buch. (그는 책을 읽는다.)

Er hat ein Buch gelesen. (그는 책을 읽었다.)

Er pfl egt gründlich zu arbeiten. (그는 꼼꼼히 일하곤 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술어가 여러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있는 경우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놓이지 않으며 그 단어들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나 단어들이 끼여들지 못한다.

례: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지 못하였다.

*그는 일하지 밤늦게까지 못하였다.

차이점은 셋째로, 조선어에서 형용사로 이루어진 규정어가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규정어보다 앞에 놓이지만 도이칠란드어에서는 이와는 반대이라는것이다.

례: (조선어)

용감한 우리 보병들이 진격합니다.

(도이칠란드어)

mein neuer Direktor (새로 온 나의 지배인)

차이점은 넷째로, 규정어들의 자리에서 도이칠란드어에서는 여러개의 형용사/분사들이 규정어로 쓰이는 경우 그것들의 자리가 《수형용사 +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형용사 + 넓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 출처나 범위, 창조자 등을 나타내면서 규정어로만 쓰이는 형용사》등으로 되지만 조선어에서는 그것들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viele gute literarische Veranstaltungen (많은 좋은 문학행사들/좋은 많은 문학행사들)

조선어에도 여러개의 형용사들이 련이어 놓이는 경우 그것들에는 일반적으로 《지시대명사 + 수사 + 관형사》라는 일정한 놓임순서가 있다.

이 두 새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두 이 새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새 두 이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일 이 놓임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된다.

차이점은 다섯째로, 삽입어가 도이칠란드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가운데에 놓이지만 조선어에서는 문장의 앞이나 또는 가운데에 놓일수 있다는것이다.

례: (도이칠란드어)

Laut Unfallstatistik des Bundesamtes – *sie ist gerade vor einigen Tagen erschienen* – sind die Straßenunfälle im letzten Jahr weiter zurückgegangen.

(바로 며칠전에 들어온 련방국의 사고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교통사고들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

(조선어)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검덕의 로동계급이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답니다.

저 동무는 모르기는 해도 룡구선수일거야.

차이점은 여섯째로, 형태적크기에 따르는 문장성분들의 자리이다.

형태적크기는 도이칠란드어에서 문장성분들이 어떤 품사에 의하여 표현되는가, 어떤 문법적형태에 의하여 표현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문장성분들이 우선 일정한 품사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 그것이 명사에 의하여 표현되는가 아니면 대명사/부사에 의하여 표현되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문장성분이 명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에는 대명사/부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보다 형태가 더 큰 것으로 본다.

문장성분들이 또한 일정한 문법적형태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 그것이 단순격에 의하여 표현되는가 아니면 전치사격에 의하여 표현되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문장

성분이 단순격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에는 전치사격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보다 형태가 더 작은것으로 본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할수 있다: 대명사/부사<단순격<전치사격

형태적크기는 조선어에서 문장성분이 단순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가 아니면 확대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문장성분이 단순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작은것으로, 확대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큰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할수 있다: 단순성분<확대성분

문장에 형태가 큰것과 작은것이 함께 놓일 때 도이칠란드어에서는 형태가 큰것이 작은것보다 뒤에 놓이지만 조선어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형태가 큰것이 작은것보다 앞에 놓이고있다.

례: (도이칠란드어)

Die Lehrerin zeigt ihn dem Schüler.

단순격(대명사) 단순격(명사)

(너교원은 학생에게 그것을 보여준다.)

(조선어)

부학부장은 학부가 출발준비를 끝낸데 대하여 학부장과 이야기하였다.

확대성분

단순성분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이칠란드어에서는 형태가 작은것이 형태가 큰것보다 앞에 놓이지만 조선어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형태가 큰 확대성분이 먼저 놓이고 그다음에 형태가 작은 단순성분이 놓인다.

문장이 단순성분과 확대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 그것들의 자리가 《확대성분 + 단순성분》의 순서로 놓이는것은 조선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순서가 모호성을 피할수 있는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례: 철수는 순희가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명철이와 찾았다.

확대성분

단순성분

실례문장의 의미적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철수는 명철이와 찾았다.



려명거리건설장을



순희가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그러나 문장이 단순성분과 확대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 그것들의 놓임순서를 《확대성분 + 단순성분》의 순서로 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적내용을 리해함에 있어서 모호한것을 피할수 없다.

례: 철수는 명철이와 순희가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

우의 실례문장은 두가지의 의미로 즉 《철수는 명철이와 순희가 함께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 혹은 《철수는 명철이와 함께 순희가 야간지

원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로 해석될수 있다.

우리는 도이첼란드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수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연구성과를 교수내용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도이첼란드어문장성분, 확대성분